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타이어産業

업 무 부

1. 개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 자료는 모스크바의 통신원이 제공한 자료와 EIU 'Country Report' (No. 1, 1992)에서 발췌한 「사회주의 국가경제」란 기사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고 있는 15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상태가 좋은 독립국가이다. 이 두 국가는 독립국가연합 총인구의 51%와 18%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61%와 16%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은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EC와 같은 완전한 독립국가간의 연합체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없었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경제, 국방 및 인구면에서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구조적 특징을 안고 있는 구소련공화국들의 공동체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립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국가들이 현존의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구소련체제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다. 이와같은 변화는 구소련을 구성했던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지배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구소련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현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구소련의 개혁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만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구소련문제 해결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만하게 분리되는 것은 러시아의 국내정치상황에 달려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만한 분리가 러시아의 현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개혁에 실패하여 러시아의 민주화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구소련의 모든 국가들이 심각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타이어산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산업 운용체제의 전환은 과도기에 있는데, 행정편의상 러시아

연방 및 우크라이나의 석유화학산업에 속해 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타이어산업도 현재 民需化轉換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구소련 군수산업의 일부이다. 군수산업을 개혁하는 목적은 종전의 독점적인 지휘·통제기구를 분산된 경영체제로 바꾸는 데 있다.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사유화의 첫 단계로 기업체에 많은 자유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이어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개혁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상부기구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말하면 산하담당기구에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기업체에서는 일부 사업장을 자체내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였다(예를들면 Voronezh 타이어공장내의 Motashin공장과 같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타이어산업의 생산지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타이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타이어산업은 여전히 정부의 상부기구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러시아 산업의 통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연방 공무부

(The Ministry of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03819 Moscow

ul. Tverskaya-Yamskaya, dom 1/3

TEL : 209-82-22

○석유화학산업부

(Department of the Chemical and Oil Refining Industries)

10185 Moscow

ul. Myasnitskaya, dom 20

TEL : 928-15-88

○석유화학생산협동조합

(Roschemneft Corporation)

129832 Moscow

ul. Gilyarovskogo, dom 31

TEL : 281-91-19

○고무·기술부

(Curator of the Rubber-Technical Industry)

TEL(Moscow) : 281-12-40

○생산공장연합회

(Shinprom Concern)

129832 Moscow

ul. Gilyarovskogo, dom 31

TEL : 284-82-02

생산공장연합회(Shinprom Concern)는 모든 타이어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법률적으로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독자적인 공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들 타이어공장의 사유화는 법적·경제적인 뒷받침이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국영 및 시영기업체의 사유화에 관한 잠정규정이 1992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타이어산업의 개혁작업이 시작되었다.

타이어산업은 또한 원자재의 부족, 특히 타이어 코드, 부틸고무 및 첨가제의 부족, 그리고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영방식으로 원자재를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신제 타이어를 판매하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물물교환 거래방법(Barter)이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공급의 불안정은 기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자재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액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

〈표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공장 현황(1991)

소재지	종업원수(명)	타이어 종류	생산능력 (1,000개/년)
Barnaul	7,081	1, 3, 4	1,930
Volzhsky	5,080	1, 3, 4	3,490
러 Voronezh	7,958	1, 3, 4, 5	5,500
Kirov	6,943	3, 4, 5	3,680
Krasnoyarsk	4,504	1, 3, 4	2,050
시 Moscow	3,720	1, 3	2,750
Nizhnekamsk	14,633	1, 3, 4	12,900
Omsk	12,729	1, 3, 4, 5	5,730
아 St Petersburg	1,520	3, 5	2,320
Sverdlovsk	2,628	3, 5	2,650
Yaroslavl	11,051	1, 3, 4	6,990
우크라이나 Bobruisk	14,948	1, 3, 4	5,170
Dnepropetrovsk	11,579	1, 3, 4, 5	4,890

〔주〕 1: 승용차용 타이어, 2: 경트럭용 타이어, 3: 트럭·버스용 타이어, 4: 농경용 타이어, 5: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료: European Rubber Journal.

타이어산업의 가동률이 1989년에는 93%였으나, 1990년에는 91%, 1991년에는 87%로 각각 떨어졌다. 이와같이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량은 470만개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제품들은 각각 특유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데, 타이어는 여러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종전의 중앙통제기구로부터 분리된 支社들은 그 명칭이 상품거래소로 바뀌었지만, 이들 거래소는 상부의 지시사항을 계속해서 수행할 책임도 갖게 될 것이다.

기업체들은 또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제조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후 상호간의 거래는 무역업자나 중간상을 통하여 계약된 가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통상도 다른 CIS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합작투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산업분야에서는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업체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 전에 Pirelli는 Nizhnekamsk 타이어공장의 확장에 투자하기로 서명을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합작회사인 Mercury사는 모스크바 타이어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재생타이어 생산현황

모스크바의 통신원에 의하면 타이어산업에서 외국인의 투자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는 타이어 재생업으로 보고 있다. 이 재생타이어분야는 타이어 수리분야에 속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분야에는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재생타이어 생산능력은 연간 10,000개에서 500,000개까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100,000개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재생타이어시장은 외국인 재생업체가 많이 점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의 수명은 국내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보다 2배나 길다고 한다.

(3) 타이어 생산현황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생산된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량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1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 생산량은 5,500만개로 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81.5%와 18.5%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장별 타이어 생산량

〈표 2〉 소련의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현황(1986~1990)
(단위: 1,000개)

연도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계
1986	21,115	26,375	47,490
1987	22,307	26,906	49,213
1988	23,749	27,326	51,075
1989	24,358	27,517	51,875
1990	25,092	26,317	51,409

〔주〕 IRSG 추경

자료: IRSG, World Rubber Statistics Handbook, Vol 4.

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장별 타이어 생산현황(1991)
(단위: 1,000개)

공장별	타이어 종류	승용차용	트럭·버스용	트랙터용, 기타	계*
러 시 아	Barnaul	1,229.2	835.1	1,715.8	6,662.4
	Volzhsy	1,477.4	1,098.4	366.2	2,942.0
	Voronezh	766.3	1,677.7	1,927.2	4,710.6
	Kirov	-	1,683.1	144.9	2,979.7
	Krasnoyarsk	713.1	792.4	411.3	1,917.2
	Moscow	1,430.0	861.0	-	2,291.0
	Nizhnekamsk	7,408.5	3,993.2	809.8	12,211.5
	Omsk(Progress)	72	-	-	72
	Omsk(Omskshina)	489.6	3,576.8	220.8	4,987.3
	St Petersburg	9.7	150.5	-	1,405.2
	Sverdlovsk	35.4	311.5	-	2,051.9
	Yaroslavl	2,418.2	2,528.4	1,715.8	6,662.4
	Federation	16,006.7	17,518.5	6,131.6	44,706.0 ^b
우 크 라 이 나	Bobruisk	-	-	-	3,855.1
	Dnepropetrovsk	-	-	-	6,324.0
	Ukraine	4,478.6	4,071.5	1,629.0	10,179.1

(주) a: 2륜차용 타이어 포함. b: 513만개의 모터사이클용 타이어가 포함됨.

자료: EIU 간행물

3. 타이어 시장현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자동차용 타이어 시장규모는 소련의 자동차 생산량과 보유 대수에 관한 자료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의 소련의 자동차 생산현황은 <표 4>와 같다.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의 소련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표 5>와 같다.

<표 4> 소련의 자동차 생산현황(1986~1990)
(단위: 1,000대)

연도	승용차	트럭·버스	계
1986	1,326	852	2,178
1987	1,319	866	2,185
1988	1,261	863	2,124
1989	1,217	888	2,105
1990	1,259	860	2,119

(주) IRSG 추정

자료: IRSG, World Rubber Statistics Handbook, Vol 4.

<표 5> 소련의 자동차등록대수 현황(1986~1990)
(단위: 1,000대)

연도	승용차	트럭·버스	계
1986	11,970	8,732	20,702
1987	13,000	9,000	22,000
1988	14,700	9,300	24,000
1989	15,400	9,650	25,050
1990	16,000	10,000	26,000

(주) IRSG 추정

자료: IRSG, World Rubber Statistics Handbook, Vol 4.

위의 <표 4>와 <표 5>를 근거로 하여 승용차 및 트럭·버스에 장착될 신차용 타이어 갯수를 각각 5개와 8개로 보고, 승용차 및 트럭·버스의 1대당 연간 타이어 교환갯수를 각각 1개 및 1.5개로 추정한다면 신차용 및 교체용 타이어의 총 수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체용 타이어 총수량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점유율은 각각 61%와 16%가 되며, 이를 동일하게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이어 수요현황(1990)
(단위: 1,000개)

구분	타이어 종류	승용차용	트럭·버스용	계
신차용	소련	6,295	6,880	13,175
	러시아	3,840	4,200	8,040
	우크라이나	1,000	1,100	2,100
교체용	소련	16,000	15,000	31,000
	러시아	9,800	9,100	18,950
	우크라이나	2,600	2,400	5,000
계	소련	22,295	21,880	44,175
	러시아	13,600	13,300	26,900
	우크라이나	3,600	3,500	7,100

자료: EIU 추정

4.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사용비율

독립국가연합(CIS)의 1991년도 고무사용량(<표 7참조>)은 206만톤으로서, 이 가운데 합성고무 사용비율은 95.4%로 나타나 있다. 이는 미국의 71% 및 다른 국가들의 평균비율인 64%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타이어산업이 西歐化됨에 따라 천연고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천연고

〈표 7〉 소련의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 소비량(1987~1991)
(단위: 1,000톤)

연 도	천연고무	합성고무	계	합성고무비율 (%)
1987	165	2,300	2,465	93.3
1988	100	2,375	2,475	96.0
1989	140	2,280	2,420	94.2
1990	150	2,340	2,490	94.0
1991	100	2,060	2,160	95.4

자료: IRSG, Rubber Statistical Bulletin.

무 및 합성고무 사용비율을 71:29로 볼때 1990년도의 천연고무 실제 사용량은 150,000톤이지만, 정상적인 사용비율에 의거 천연고무 사용량을 환산하면 720,000톤이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독립국가연합이 정상적인 사용비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천연고무보다 더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둘째 타이어산업분야의 개혁이 다른 분야보다 더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경영방식의 개혁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높은 비율의 합성고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합성고무 증산계획을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1995년에도 천연고무 수입량이 150,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국가연합의 대략적인 합성고무 생산 능력은 1991년도 세계고무연감(World Rubber Statistics)의 세계 합성고무업체현황(International Institute of Synthetic Rubber Producers)에서 〈표 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8〉 소련(USSR)의 합성고무 생산능력(1989, 1991)
(단위: 1,000톤)

합성고무 종류	연 도	1989	1991
솔리드 SBR		600	690
SBR 라텍스		90	125
BR		465	460
IR		960	1,100
IIR		85	85
CR		110	20
NBR		100	100
계		2,225	2,545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of Synthetic Rubber Producers: Worldwide Rubber Statistics, 1991.

자료: EIU Rubber Trends/June 1992
번역: 李石熙/協會 業務課長

원 고 모 집

「타이어」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타이어공업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의 원고를
다음의 요령에 의거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1. 경영, 경제, 무역, 기술에 관한 논문 및 리포트
2. 타이어 안전사용에 관한 체험기, 시·수필 등
- 원고매수 : 제한없음.
- 마 감 : 매월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접수.
- 고 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보 낼 곳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무역회관 1910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회지과
- 문 의 처 : TEL 551-1904